

# 방언 영역의 교재 구성에 관하여

신 희 삼\*

## 〈차 례〉

1. 들머리
2. 교재의 구성
  2. 1 단어의 길잡이
  2. 2 방언 바로 알기
  2. 3 방언의 실재와 잇기
  2. 4 단원의 마무리
3. 마무리

## 1. 들머리

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국어교육의 지역성과 관련하여 볼 때 방언 교육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방언은 표준어나 다른 지역의 방언과 차별성을 특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 또한 방언은 그 사용 지역의 정서나 분위기가 반영된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 교육에서는 방언 교육에 그다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실제 국어교육에서는 방언은 고사하고 국어 자체가 모국어로서 대접을 소홀히 받아왔다. 현재 한자교육의 복원 운동, 영어의 공용어

\* 동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heesam@dreawiz.com)

화 논의 등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어교육이 방언과 같은 지역 언어 문화에 관계된 분야에 눈을 돌리는 추세는 국어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김수업(2001)은 지역 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역언어란 무엇인가. 손쉽게 그냥 우리말 사투리로 보면 어떨까. 그러나 애초에 지역 언어라고 해서 지역을 내세웠기 때문에 사투리라도 땅과 곳에 갇힌 사투리에 맞추고 사람이나 집안이나 동아리에 따라 쓰는 사투리는 싸잡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올바르겠다. 말하자면 지역언어란 어느 마을 사투리나 어떤 고장 사투리라고 하면 뜻 넓이가 가깝게 잡힌 셈이 된다.

곧 지역언어의 개념은 방언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방언을 제외한 지역 방언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하겠다<sup>1)</sup>. 또한 그는 언어 문화를 '말로 이루어진 문화'라 하여 이를 다시 '말로써 자연을 새롭게 바꾸고 이치를 밝혀 삶을 나아지게 한 것들'이라는 것으로 뜻매김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 언어 문화란 '마을이나 고장의 사투리으로써 이루어내 삶의 자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교육에서 방언교육의 필요성은 그 중요성을 돌이켜 볼 때, 당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지역문화가 부실한 문화교육은 사상누각과 같이 공허하다. 나아가 지역문화의 중심에는 지역 언어교육이 자리잡고 있다. 방언교육과 같은 지역 언어 교육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어교육에서 방언교육보다는 표준어교육에 대한 비중이 월등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임철성(2001)은 다음과 같이 국어교육에서 표준어의 의미는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표준어가 강조되었던 것은 구어보다는 문어에서이다. 표준어는 학교 교육 등에서 글쓰기의 규범 문제이다. 이것이 일단 권위를 획득하게 되고, 올바른 언어라는 인식을 얻게 되면 구어에 상당한 입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표준어의 강조는 학교 교육에서 구어보다는

1) 김수업(2001)은 방언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방언과 서양의 방언을 어렵어렵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우리말 '사투리'로 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공감이가지만 현재 사투리보다 방언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여기에서는 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문어를 강조하게 한다. 우리 교육에서 말하기 듣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문어를 강조하다 보면 문어처럼 말하거나 듣기를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구어 능력의 발달에 방해 요인이 된다. 또한 구어를 표기하는 체계로서 문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어의 체계에 맞추어 구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언어의 흐름을 방해한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표준어는 과평가되고 있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방언은 저평가되었을 뿐 아니라 국어교육에서도 그다지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해 왔다. 고등학교 문법교과서에 따르면 표준어는 통일의 기능과 준거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표준어가 문어에서는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당위성이 있지만 구어가 주는 장점을 주지는 못한다. 비록 문어에서는 표준어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구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방언교육과 관련하여 임철성(2001)은 지역어 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2)</sup>.

'지역어교육'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언어 생활 교육으로서, 지역어의 이해와 지역어의 의사소통 활동 및 지역어에 대한 태도는 물론, 지역의 언어 예술과 같이 지역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제반 현상을 대상으로 포함한다. 비록 지역어교육이 생활 언어 교육이라고 할 지라도 지역어교육이 국어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어교육의 위상은 전체 국어교육과의 관련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생활 언어는 일정한 교육적인 처치 없이도 자연스럽게 습득되기 때문에, 지역어는 대부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교육적 장치를 필요로 하는 부분만 지역어교육을 통해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표준어 가운데 지역어와 동일한 부분은 지역어를 통해 표준어가 자연스럽게 생활 언어로 받아들여지지만, 지역어와 표준어가 다른 부분은 인위적으로 표준어를 교육하여야 하는 것처럼, 표준어와 다른 지역어는 교육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더욱이 고어의 잔재처

2) 임철성(2001)은 다음과 같이 지역어가 지역 방언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지역 방언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음운, 어휘, 문법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대체로 다른 지역 언어와의 차이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방언이 지역어로 인식되는 것은 방언이 언어 생활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방언이 표준어나 다른 지역 방언과의 차별성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역어는 지역 공동체의 의사소통이라는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따라서 지역어는 다른 지역어와 공통되는 부분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표준어와도 공통되는 부분이 아주 많다. 따라서 지역어는 표준어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며, 지역어들간에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럼 잘 사용하지 않는 지역어를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나아가 지역어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지역어'라는 용어는 지역 공동체의 의사소통이라는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언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방언교육이라는 넓은 의미에서는 합치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김공철(1986:363)에서는 방언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중의 의도에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의도, 자세를 바로잡는 데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방언은 지역 사회 주민의 오랜 생활의 호흡이며 결정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고귀한 생명성과 역사, 문화, 전통이 응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방언과 문헌과 지명 등 언어 자원을 통하여 실증해야 한다. 이러한 실증은 많은 언중들의 공감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중략〉

피상적인 지식이나 기술만으로 도저히 이루지 못할 게 있다. 미묘한 감정의 뉘앙스의 표현 격외감 없이 주고 받는 말의 리듬, 울동이 있고, 운이 흐르는 말의 흐름, 하나하나의 낱말에는 태어났을 때부터의 원초적 체험이 서려 있고 그것이 화제에서의 맥동, 그리고 발자성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방언에 간직되어 있다. 그것을 역시 생활의 장에서 살리고 키워나가는 것, 그 일이 방언 교육의 하나의 목표가 될 것이다.

위의 글에서 주장하듯이 방언 교육은 그 가치와 의의가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방언 교육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연구원(1997)에서 실제 언어사용에 관한 실태를 분석한 것을 보면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사 역시 80%이상이 방언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방언 교육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 방언 교육과 관련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지식 영역의 특색은 언어 현상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하되, 학습한 지식을 국어사용 상황에 적용하는 활동을 강조하는데 있다. 6차 교육 과정까지를 살펴보면 국어 지식 분야에서 방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아주 미미하게 나와 있다. 그러나 7차

교육 과정에서는 비표준어까지 사용범주를 확대하고 있다<sup>3)</sup>. 이 글은 7차 교육 과정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그간 소홀히 다루어 왔던 방언 교육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방언의 이해'라는 대단원을 교재로 작성하고자 한다.

국어의 성격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어과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려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와 국어의 목적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방언은 국어지식 분야의 전 학년에 걸쳐 밀접한 관련을 가진 분야이다.

특히 국어생활 과목에서는 경험적 실천적 현상에 기반을 두어 내용을 선정하고 실제적인 국어사용 상황에서 언어적 문제 해결력이 신장되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어와 우리의 삶이나 국어 생활의 실천 영역에서는 명제적 지식의 전달을 지양하고 다양한 사례를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며, 국어 규범과 국어 사용 문화를 이해하고 국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능동적인 것을 강조하고 국어 생활과 국어 정신 영역은 자신의 국어 생활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sup>4)</sup>, 문법에서는 국어 가꾸기 영역이 방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5)</sup>. 국어 지식 분

3)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현행 국어 교과 교육과정의 내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강조하며, 교육 내용의 사회적, 개인적, 학문적 적합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방언 교육은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4) 7차 교육과정에서 방언과 관련된 국어 생활의 영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어와 우리의 삶

(가) 국어 생활과 사고

- ① 사고의 과정에서 언어의 작용을 안다.
- ② 국어가 한국인의 사고에 바탕이 됨을 이해한다.

(나) 국어생활과 사회 문화

- ① 언어의 사회적 중요성을 안다.
- ② 국어와 한국 문화 현상의 관계를 이해한다.

5) (3) 국어가꾸기

(가) 국어 사용의 규범

- ① 표준발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 ② 표준어와 방언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상황에 따라 바르게 사용한다.
- ③ 맞춤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에서 이를 지킨다.

야에서는 방언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은 5학년 항목에 나와 있다6).

여기에서는 방언의 분야를 좀더 심화시켜 10학년을 대상으로 6차시에 해당하는 교재를 작성하기로 한다7). 10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7차 교육과정에서 주장하는 다양성, 학생 중심, 지역,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특성에 걸맞기 때문이다.

둘째, 방언의 개념이나 성격, 방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어학적 지식에 대한 기초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심화 학습으로서 방언조사를 통한 자율적인 소규모 집단의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방언 영역의 교재 구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구성 내용으로는 방언 바로 알기 장에서는 방언의 개념, 표준어와 방언, 살아 있는 언어로서의 방언,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등의 방언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를 구하고, 방언의 실제와 잇기에서는 각 방언의 특성, 방언조사, 문학 작품에서의 방언, 방언의 긍정적 기능과 계승 등을 통해 방언의 계승·발전적 측면을 다루어 나가겠다8).

6) <5학년>

- 내용 :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을 안다.
- 기본 : 표준어를 정하는 기준을 안다.
- 심화 :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말한다.

- 내용 :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한다.
- 기본 : 표준어를 사용하여 친구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
- 심화 : 다른 사람의 말에서 표준어가 아닌 것을 찾아 표준어로 고친다.

- 내용 : 상황에 따라 방언과 표준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기본 : 표준어를 쓸 때와 방언을 쓸 때의 장단점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 심화 : 주위에서 표준어나 방언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찾아 보고, 그 이유를 말한다.

- 7) 7차 교육 과정에서 국어과의 주요한 특성으로는 1학년에서부터 10학년까지 10년간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있는데, 10학년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한다.
- 8) 임철성(2001)에서는 지역어의 교육 내용으로 지역어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포함한 지역어 현상 '알기', 지역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살기', 지역어에 대한 바람직한

## 2. 교재의 구성

### 2. 1 단원의 길잡이

사람은 말과 더불어 한 평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말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심지어는 말의 사회성을 전혀 무시하고 제멋대로 쓰는 경우가 흔하다. 최근의 인터넷 용어의 남발이나 나아가 영어나 한자 같은 외국어의 사용을 공론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바로 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들이라 볼 수 있다<sup>9)</sup>.

이러한 언어의 혼란은 지역적인 공동체의식이 무너지고,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언어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 곁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고, 바른 언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규범적인 언어 생활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표준어를 들 수 있다. 대다수의 언중들은 표준어를 바른 언어로 인식하고 방언은 그른 언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마 '표준'이라는 용어에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언 역시 표준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중요한 언어이다. 그러므로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 단원은 기존에 인식하고 있는 방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방언의 성격이나 방언이 지니고 있는 가치, 의의, 방언의 실제모습 등을 통하여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

태도를 바탕으로 지역어를 발전적으로 '잇기'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 9) 영어 공용화가 공론화되고, 한자 사용이 세를 이루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말 교육에 대한 강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어휘 교육면에서 방언의 중요성은 표준어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2. 2 방언 바로 알기

### 2. 2. 1 바탕글

#### 방언의 개념

방언의 학술적 정의는 '한 언어 내부에 나타나는 변이 양상으로서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에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음성, 음운, 문법, 어휘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sup>10)</sup>. 그러나 언중들이 인식하고 있는 방언의 개념은 학술적 개념과 약간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언중들의 방언에 대한 인식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표준어에 대한 상대적 개념과 표준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의 방언이 그것이다. 첫째, 표준어에 대한 상대적 방언으로서의 개념은 방언에 관한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언중들의 이러한 인식은 방언이라는 용어를 비전문적인 술어인 사투리로 바꿔 사용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 있다. 이때의 사투리는 세련되지 못하고 품위 없는 어느 시골말이란 의미로 그 고장 특유의 언어요소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그 만큼 방언을 격이 낮은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증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하면 표준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sup>11)</sup>.

둘째, 방언학에서 말하는 방언의 개념으로 표준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방언을 가리킨다. 방언학자들은 모든 방언들은 언어학적 관점에서 동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표준어가 서울 지역의 방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위적인 언어라 할 때, 여타 지역의 방언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언어를 형성하고 있는 하위 단어로서의 언어체계 전반을 방

10) 최전승(1999:239)은 '방언 사용에 관해 국어가 지리적 및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다른 양상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현대 국어의 방언이라고 할 때, 우리 모두의 존재는 예외 없이 어느 일정한 지역의 출신이며 동시에 일정한 사회 계층과 연령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고 있다.

11) 국립국어연구원(1997)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제보자들은 표준어와 방언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표준어는 교양 있고, 집값고, 상냥한 반면 방언은 믿음직스럽고 씩씩하지만, 촌스럽고 무뚝뚝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언이라 할 때, 표준어의 중심 요건이 되는 서울말도 다른 지역 방언처럼 한국어 방언의 하나라는 것이다. 서울말이 표준말의 기본이 된 것은 방언 차이에 의한 언어의 분열을 막고,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공용어로서 자격을 얻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지역 방언과 차이가 없다. 곧 우리가 사는 지역의 언어도 표준말과 비교할 때 언어학적으로 전혀 열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단지 인위적인 표준어의 선정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표준어가 아닌 것이지 지역 방언이라고 해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고장의 정서와 문화의 체취가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방언은 방언 자체로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에 사는 언중들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방언은 표준어에 비해 열등하고 표준어는 방언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즉 표준어는 표준어대로 가치가 있고, 방언은 방언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다<sup>12)</sup>. 단지 차이가 있다면 표준어는 인위적인 가공의 언어이고 방언은 그 나름대로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가진 언어라는 점이다.

### 표준어와 방언

표준어는 표준어대로 방언은 방언대로 그 나름의 훌륭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언어 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방언은 그 속성상 지역에 따라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데 비하여, 표준어는 통합된 모습을 보인다.

표준어가 통합된 양상을 보여야 하는 까닭은 지역 방언의 차이에서 오는 의사 소통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써야 하는 공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에 의해 재구성된 인위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사용의 범위에서도 표준어는 공

12) 강희숙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옳지 않다.

그러나 강조하건대 언어학적인 의미에서 어떤 언어나 사투리도 다른 언어나 사투리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할 순 없다. 모든 언어는 또 모든 사투리는 언어학적으로 평등한 존재인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절대적 진리란 성립하기가 쉽진 않지만 모든 언어는 언어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 이것은 절대 옳은 말이라 해도 전혀 틀림이 없다. 임철성(2001)에서 재인용.

용어로서 방송, 신문, 교과서 등에서 두루 쓰이는 점이 방언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표준어는 현대의 서울 지역의 교양 있는 말씨를 가리킨다. 그러나 서울말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종의 방언<sup>13)</sup>이라고 할 수 있다.

방언은 표준어와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표준어가 단일한 모습을 갖는데 비해 방언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방언은 지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분열되는 특성이 있으며, 고립된 지역일수록 고어 형태를 유지하며, 통용성에서는 한정된 지역에 국한한다. 이에 반해 표준어는 지역적, 사회적 특성에 의해 분화되는 특성을 억제시키며, 전지역에서 통용되는 특성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표준어와 방언은 언어학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떤 한 방언이 표준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준어와 방언은 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 오히려 언어학적 면에서는 방언이 표준어보다 우월한 체계를 갖출 수도 있다<sup>14)</sup>.

국립국어연구원(1997:26~27)의 조사 분석에 따르면 표준어 사용지역에서 자신이 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떳떳하게 생각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62.8%이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23.2%인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중 언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자기의 이중언어

13) 서울 방언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동사 어간 '하'를 '허'로 발음한다(하시우 → 허시우). 둘째, 종결어미에 '-ㅂ쇼'를 부가시켜서 존대어로 사용한다(어떻게 하랍니까? → 어떻게 허답쇼, 어서 오십시오 → 어서 읍쇼). 셋째, 'ㄱ' → 'ㄷ'현상이 나타난다(고구마 → 구구마). 넷째, 특이한 종결어미가 있다(하지요 → 허쵸, 이것 보시오 → 이겨 보슈).

14) 이에 관해 고등학교 문법교과서(183쪽)에서는 방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방언은 또한 그 나름대로의 하나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표준어와 비교해 볼 때에 발음들이 무질서하게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준어를 기준으로 하여 보았기 때문이다. 한 방언만을 놓고 분석해 보면, 각각 독특한 자음 체계와 모음 체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발음 뿐 아니라 단어 형성, 문장 구조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다. 언어학적인 경우로 보면 자음이나 모음의 체계가 표준어보다 정교한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나 사회 문화적으로 방언은 각 지방 특유의 정서가 담겨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생활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중들이 공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표준어를 쓰고 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방언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적인 자리에서 쓰는 방언의 효용은 친밀감, 동지애, 애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sup>15)</sup>. 이러한 점은 구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중언어 생활을 긍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표준어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방언 교육의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살아 있는 언어로서의 방언

방언은 정체되거나, 죽은 언어로서 교어의 잔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서 언어의 일반적인 과정인 생성, 변천,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이 과정을 방언의 특성에 맞게 표현한다면 방언의 지속, 방언의 혼재, 방언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방언의 지속성이란 어느 지역의 방언이 옛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방언 중에서 제주도 지방과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방언의 보수성, 방언의 유지성이라고도 한다. 방언의 지속성은 방언 주권성에 따라 문화, 정치의 중심지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속성이 약하고, 멀면 멀수록 지속성이 강하게 된다.

방언의 혼재성이란 두 개 이상의 지역 방언이 서로 혼재되어 쓰이는 것을 가리킨다. 이 때 방언의 경계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들어선이 이용된다. 들어선을 이용하면 방언이 혼재된 경계구역, 다른 방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잔재지역 등에 관해 정확히 알 수 있다<sup>16)</sup>.

15) 사적인 자리에서 행하는 방언의 구사는 자기가 거주하는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기르는 효과를 가지며, 또한 옛것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16) 들어선이란 음운, 어휘 등이 동일하게 쓰이는 지역을 잇는 선을 말하는데, 들어선이 중복되면 들어선속이 생기고, 이에 의해 방언 구획을 정할 수 있다. 초점지역이란 들어선들의 중심부를 가리키는 말로 이곳엔 들어선이 지나가지 않는다. 잔재지역이란 여러 개의 초점 지역에서 퍼져 나온 들어선들이 만나지 않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이곳에는 옛 말이 많이 남아 있다. 과도 지역이란 초점 지역에서 퍼져 나온 들어선들이 가로 세로로 마구 교차하는 곳을 가리킨다.

방언의 통일성이란 방언의 혼재가 활발히 이루어진 다음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는 언어외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곧 교통의 발달, 교육의 확대, 지역민의 이동, 매스컴의 발달 등에 의해 각 지역방언이 통일되려는 성질을 갖는 것이다<sup>17)</sup>. 현재와 과거 30~40년 전의 방언을 비교해보면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한다.

### 지역 방언과 사회방언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역적,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방언의 분화도 이에 따라 지역방언과 사회방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역방언이란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언어의 변이체로서 각 지역 방언은 언어로서 독자적인 체계를 지닌다. 지역방언은 원래 하나의 균질한 언어 상태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지역에 따른 언어 변화의 양상을 달리 함으로써 생겨난다. 이 때문에 여러 지역 방언들에는 변화의 각 시기를 반영하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하여 한 언어의 변화 과정과 변화 이전의 언어 상태를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역사적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된다. 지역 방언은 역사적, 지리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분화를 보이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영국영어가 미국영어보다 지역방언이 많으며, 지역은 좁지만 역사가 오래되고 산악지형에 따른 교통의 불편으로 우리나라의 방언 분화가 심한 것이 이에 속한다.

사회방언은 사회계층의 차이, 세대의 차이, 직업의 차이, 성별의 차이 등의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 방언을 가리킨다. 궁중어, 이동어, 여성어, 상류어, 전문어, 직공어, 군대어 등이 사회 방언으로서 종류들이다. 우리가 쓰는 언어는 횡적이나 종적이나에 의해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구분되는데, 계층, 세대 등의 종적인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바로 사회 방언이다. 사회 방언은 지역 방언처럼 뚜렷한 차이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 물론, 인도의 사회 방언과 미국의 흑인 영어는 그 차이가 매우 뚜렷하여 사

17) 지방 사람이 서울에 갔다 오면 금세 말씨가 바뀌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식과 교양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의 언어를 선호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방언의 통일성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회 방언으로서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사회 방언에 관한 연구는 지역 방언의 연구에 비해 상당히 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언어 분화의 요인이 지역적인 면보다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세분화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사회 방언에 관한 연구는 더욱 진전될 것이다.

## 2. 2. 2 학습활동

- ① 방언의 가치에 관하여 대해 생각해 보자.
  - 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친구의 생각과 비교해 보자.
  - ② 표준어의 가치에 관해서 이야기 해 보자.
  
- ② 방언과 표준어의 차이점에 관해 알아보자.
  - ① 방언의 정의를 말해보자.
  - ② 표준어의 기준을 말해보자.
  - ③ 표준어로 인정된 방언에 관해 알아보자.
  - ④ 방언이 표준어보다 열등한 언어가 아닌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③ 방언의 특성에 관하여 알아보자.
  - ① 방언의 지속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 ② 잔재지역이란 무엇인가?
  - ③ 방언의 통일성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 ④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에 대하여 알아보자.
  - ① 우리나라가 방언 분화가 심한 것은 무엇때문인가?
  - ② 우리가 사는 지역은 방언 구획상 어디에 속하는가?
  - ③ 사회 방언의 형성 원인은 무엇인가?
  
- ⑤ 자기가 아는 방언을 조사해 보자.
  - ① 지역 방언을 조사해 보고 친구의 것과 비교해 보자.
  - ② 사회 방언을 조사해 보고 친구의 것과 비교해 보자.

## 2. 3 방언의 실제와 잇기

### 2. 3. 1 바탕글

#### 각 방언들의 특성

방언은 지역의 방언 차에 의해 방언권으로 나누어진다. 아직은 몇 개의 방언권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이 정해지지 않았다. 크게 보면 북부 방언권과 남부 방언권으로 나눌 수도 있고, 작게는 소규모의 지역 단위로도 나눌 수 있다. 현재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방언권은 함경도 방언, 평안도 방언, 중부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등의 6개이다<sup>18)</sup>.

이러한 방언들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공통점과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등에서는 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의미를 분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조체계를 보유하고 있다<sup>19)</sup>.

또한 표준어의 모음 /위/와 /외/는 중부방언과 전라방언에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단모음 [ü]와 [ö]로 발음되지만 함경도방언과 평안도방언에서는 이중 모음 [wi]와 [we]로 발음되며, 경상도방언에서는 단모음 [i]와 [e]로 발음된다. ‘△’과 ‘♠’의 ‘ㅅ’과 ‘ㅂ’유지형, ‘·’가 ‘ㅇ’로 변하는 현상, 어두의 예사소리의 된소리화, |모음 역행동화<sup>20)</sup> 등은 전라방언과 경상방언에서 볼

18) 이승녕 1967:410, 또한 이익섭은 282 서북(평안)방언권, 동북(함경)방언권, 중부 방언권, 서남(전라)방언권, 동남(경상)방언권, 제주방언권으로 나누었으며, 小倉進平(1940)은 경상방언, 전라방언, 함경방언, 평안방언, 경기방언, 제주도방언 등으로 나누고 있다. 김공철(1977:129)은 북부방언(동북부방언, 서북부방언), 중부방언(중부방언, 서부방언), 남부방언(동남부방언, 서남부방언)) 등으로 나누고 있다.

19) 단어 성조 의미

말이 HM 馬

말이 MM 斗

말이 LM 言

(최전승 1999:244)

20) ‘|모음 역행동화 현상은 ‘고기 → 께기’, ‘잡히다 → 께히다’ 등처럼 전국적으로 흔하게 나타나지만, ‘밭이다 → 뱀이다’, ‘맘이다 → 뱀이다’ 등처럼 명사가 뒤의 조사를 만나 ‘|모음 역행 동화를 일으키는 것은 전라도 방언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다.

수 있는 특징이다.

중부방언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역을 말하는데, 대부분이 표준어로 통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징적인 것으로는 대답할 때 사용하는 '예' 대신에 '네'를 사용하는 것이 있다.

제주방언의 특성은 음운 면에서는 ·로 표기되던 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휘 면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색다른 어휘가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육지와의 오랜 고립 생활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방언조사

방언조사는 방언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 요소다. 왜냐하면 정확한 방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방언자료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현지조사의 방법과 우편조사의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 방언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방언 조사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일반적 사항으로는 조사항목의 선정, 질문지 작성, 질문방법, 조사 지점 선정, 체보자 선정, 전사 방법, 조사원의 자격 등이 있다.

조사 항목의 기준 자료로는 한국정신문화원에서 작성한 한국방언조사 질문지의 형식과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이때 구체적인 조사 항목의 결정은 조사 목적과 여건에 맞추어 결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질문지는 단시간 내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사 지점의 성격에 걸맞는 필요한 어형만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문 방법의 기본 유형으로는 명명식 질문법, 완결식 질문법, 대담식 질문법, 역질문법 등이 있는데, 이것 역시 조사지점과 체보자에 따른 효율적인 질문법을 사용해야 한다. 조사지점의 선정은 조사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전통방언학의 관점에서는 옛말이 많이 남아 있는 시골, 산간, 도서 지역을 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조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체보자의 기본적 선정 기준으로는 토박이의 여부, 나이, 건강 상태, 학력 등이 고려되어진다. 전사 방법으로는 음운 수준까지만을 구별하여 적는 간이 전사와 변이음의 음성 차

이까지를 고려한 정밀 전사가 있는데 보통은 간이전사만으로 충분하다. 조 사원의 기본적 자격은 귀가 밝아야 하며, 음성학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입기 용변에 능하고 대체로 나이든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예의범절을 갖춘 사교적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문학 작품에서의 방언

시와 소설 같은 문학 작품에서 표준어는 절대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다. 문학어로서 표준어의 수용은 1936년 10월 조선어 학회에서 사정하여 발표한 '조선어 표준말'이후부터 확립되었지만 실제 1930년대 이전부터 서울말이 문학어의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몇몇 문학인의 작품은 지역 방언의 어휘와 문법 형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한 경우가 많았다. 김소월 '진달래꽃(1925)', 한용운의 '님의 침묵(1926)', 김영랑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1930)', 백석의 시집 '사슴'(1936), 이문구 '관촌수필(1977)', 박경리 '토지(1970)', 조정래 '태백산맥(1989)' 최명희 '혼불(1990)' 등이 그것이다. 김소월은 표준어 대신 그의 고향인 평북 정주 방언을 사용하여 극적인 시적 효과를 얻어냈다. 한용운은 무의식적으로 일상화된 충청 방언을 사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랑은 전남 강진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정서를 절묘하게 표출하고 있다. 백석은 평북 정주 방언을 통해 유년 시절의 고향 모습을 적절하게 담아 내고 있다. 이문구는 충청방언을 사용하여 농촌사회를 표현하였고, 박경리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거의 한 세기 전의 방언을 완벽하게 재현해 내고 있다. 조정래는 절죽한 육담과 전라도 방언을 사용하여 대하소설의 새 지평을 열었으며, 최명희는 전북방언의 토속성을 한결 완숙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 방언의 긍정적 기능과 계승

방언의 형성은 정치, 사회, 지리적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하나의 언어가 분열되어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지리적, 사회적 공간의 유형에 따라 하위 방언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당 방언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작용하는 언어사회라는 일정한 영역과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 방언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 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

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단순히 정보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리적 위치, 사회계층 등의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언의 사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정보와 동시에 제공되는 독특한 정서는 동일한 방언을 사용하는 언어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강한 일체감과 정체성을 느끼게 한다. 나아가 이러한 유대감은 공동체적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방언의 이러한 사회적 기능은 소속 집단에 대한 강한 애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지나친 폐쇄성을 경계하고 방언의 긍정적인 면을 살려 나간다면 한층 풍요로운 언어 생활이 이루어 질 것이다. 아울러 방언의 이해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표준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방언과 표준어는 따로 분리해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언 연구의 의의는 언어학적으로는 어휘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전통의 계승과 지역과 계층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표준어에서 볼 수 없는 방언만이 가지고 있는 어휘는 우리의 사고의 다양성을 확대시킬 수 있고, 방언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함으로써, 서울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한 이해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방법이 선행되지 않는 막연한 생각은 오히려 방언의 중요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지만 언중들의 방언과 표준어에 관한 균형 있는 탐구자세, 그리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취해야 할 적극적인 방언 교육이 방언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사실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역 방언만이 주로 연구의 대상이었다. 이는 방언의 다양한 분화를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역방언의 수월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방언 역시 지역 방언과 더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계층과 연령 등의 차이에 따른 언어적 특성을 면밀히 연구하여 지역 방언과 동시에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2. 3. 2 학습활동

- ① 각 지역 방언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① 자기가 사는 지역의 방언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해 보자.
  - ② 표준어와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
  
- ② 문학 작품 속의 방언의 쓰임에 대해 조사해 보자.
  - ① 시 속의 방언에 관해 조사해 보자.
  - ② 소설 속의 방언에 대해 조사해 보자.
  - ③ 작가와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자.
  
- ③ 방언을 보존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알아보자.
  - ① 개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② 정책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 ④ 자기가 사는 지역의 특이한 어휘에 관해 알아보자.
  - ① 자기의 것과 친구의 것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자.
  - ② 특이한 어휘가 생성된 원인에 관해 이야기 해 보자.
  
- ⑤ 방언 조사 방법에 관해 알아보자.
  - ① 방언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관해 생각해 보자.
  - ② 방언조사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2. 4 단원의 마무리

#### 2. 4. 1 확인하기

- ① 다음 사항에 대해 조리있게 발표해 보자.
  - ① 방언 교육의 필요성
  - ② 우리 지역의 방언을 알아야 하는 이유
  
- ② 여기에서 요구하는 학습목표에 이르렀는지 다음 물음에 따라 스스로 확인해 보자.
  - ① 방언과 표준어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는가?
  - ② 방언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할 수 있는가?

- ③ 방언구획에 따라 자기가 사는 지역이 무슨 방언권에 속하는가를 말할 수 있는가?
- ④ 사회 방언의 예를 다섯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는가?
- ⑤ 자기 지역 방언의 음운, 문법, 어휘 등의 특성에 따라 각각 세 가지 이상의 예를 들 수 있는가?

③ 다음 질문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① 이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 ② 밥솥 바닥에 눌러 붙은 것을 ( )이라고 합니다.
- ③ 여름에 피는 꽃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④ 가래는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 2. 4. 2 보충하기

① 표준어 규정에서 방언이 표준어로 인정되는 예를 조사해 보자.

② 표준어와 방언으로 연결해 보자.

- ① 표준어로 연결하고 그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 ② 방언을 최대한 사용하여 연결하고 그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 ③ 두 가지 연결의 차이점을 토론해 본다.

③ 방언의 사회적 기능에 관하여 알아보자.

- ① 긍정적인 면에 관해 토의해 본다.
- ② 부정적인 면에 관해 토의해 본다.

④ 자기 지역의 특이한 어휘를 제시하고 표준어로 표시해 보자.

## 2. 4. 3 심화하기

① 우리 고장의 특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뒤에 표준어가 아닌 것을 표준어로 고쳐 본다.

②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방언에 관해 조사하고 이를 표준어로 바꿔 본다.

③ 주위에서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찾아 보고 그 이유에 대해 토의해 본다.

- ④ 각 지역 방언이 많이 나오는 소설 한편을 선택하여 읽어보자.
  - ① 이 소설에서 나오는 방언을 뽑아 정리해 본다.
  - ② 여기에서 사용되는 방언이 소설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토론해 본다.
  - ③ 이 방언들을 표준어로 바꾸면 소설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토론해 본다.
  - ④ 필자의 방언 선택이 적절한지 토론해 본다.
  
- ⑤ 학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용어를 조사하고 방언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 ⑥ 각 지역 방언의 특성을 알아본다.
  - ① 경상도 방언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 ② 제주 방언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 ③ 서울 방언에 대해 알아본다.
  - ④ 평안도 방언에 대해 알아본다.
  - ⑤ 함경도 방언에 대해 알아본다.
  - ⑥ 위 방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토의한다.
  
- ⑦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각자 소집단별로 인원을 구성하여 자기 교장의 방언조사를 직접 해 보자.
  - ① 조사 항목은 학습효과에 적절하게 정해 본다.
  - ② 질문지는 약식으로 한다.
  - ③ 질문법은 직접 질문법을 이용한다.
  - ④ 조사 지점은 자기 교장으로 하고 제보자는 복수로 한다.
  - ⑤ 전사는 약식 전사로 한다.

### 3. 마무리

지금까지 방언 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7차 교육과정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방언의 이해라는 대단원의 교재를 10학년을 대상으로 6차시 정도에 해당하는 교재를 작성하였다.

이 글에서는 방언 영역의 교재 구성에 대한 논의를 주목적으로 삼았다. 국어교육에서 방언교육에 대한 논의는 지역 언어 문화와 관련시켜 볼 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 분야가 국어교육의 교과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미약한 편이다. 그러므로 방언분야

의 독자적인 단원 구성은 방언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단원의 구성에서 방언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단원의 길잡이에서 밝혔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방언 바로 알기', '방언의 실제와 잇기' 등에서 이론적인 사항을 다루었다. 차시별로 진도 계획을 세운다면 '단원의 길잡이'와 '방언 바로 알기'를 3차시 분량으로 하여 방언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방언의 실제와 잇기', '단원의 마무리'를 나머지 3차시 분량으로 하여 방언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이상으로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추려 마무리로 대신하겠다.

첫째, '단원의 길잡이'에서는 언어의 중요성이 무시되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방언 교육의 중요성을 약술하고 표준어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방언의 이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이 단원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다.

둘째, '방언 바로 알기'라는 소단원에서는 방언의 개념, 표준어와 방언, 방언의 특성, 지역방언과 사회 방언 등의 항목을 통해 방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았다. 학습활동에서는 바탕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방언의 실제와 잇기'에서는 각 방언의 대표적인 특성을 다루었으며, 방언 조사 항목에서는 방언 조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면을 다루었고, 문학작품에서의 방언에서는 실제 방언이 작품 속에 투영된 것을 보여주었으며, 방언의 긍정적 기능과 계승에서는 방언의 의의를 강조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였다. 학습활동에서는 바탕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과제를 제시하였다.

넷째, '단원의 마무리'에서는 확인하기, 보충하기, 심화하기 등을 다루었는데, 확인하기는 바탕글에 대한 이해의 과제를 제시하고, 보충하기에서는 바탕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심화하기에서는 바탕글을 기본으로 응용하는 단계로 항목에 따라서 다소 힘든 과제도 제시해 보았다.

## 참고 문헌

- 교육부(1997), 교육부 고시 제 1997-15(별책 5) 『국어과 교육 과정』, 교육부 교육 과정.
- 국립국어연구원(1997), 『국어 교사의 표준어 사용 실태 조사(I)』, 국립국어연구원.
- 김공칠(1983), 『방언학』, 학문사.
- 김광해(1997), 『국어지식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수업(2001), “지역 언어 문화와 국어교육”, 국어교육학회 제17회 학술발표대회.
- 성낙수의(1991), 『국어학서설』, 신원문화사.
- 이기백(1988), 『국어학 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
- 이대규(2001), 『국어교육의 내용연구』, 교육과학사.
- 이돈주(1969), “전남방언에 대한 고찰”, 『어문학논집』 5, 전남대.
- 이삼형 외(2000), 『국어교육학』, 소명출판.
- 이상규·백두현(1996), 『내일을 위한 방언 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이익섭(1984), 『방언학』, 민음사.
- 이익섭(2000), 『국어학 개설』, 학연사.
- 임지룡(2000), “국어지식 영역의 교재 구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32, 국어교육학회.
- 임철성(2001), “지역어와 국어교육”, 국어교육학회 제17회 학술발표대회.
- 최전승의(1999), 『국어학의 이해』, 태학사.
- 한국방언학회(1994), 『국어방언학』, 형설출판사.
- 한글학회(1995), 『국어학사전』, 한글학회.

〈초록〉

## 방언 영역의 교재 구성에 관하여

신희삼

이 글은 7차 교육과정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10학년을 대상으로 6차시에 해당하는 교재로 구성되었다. 방언은 표준어에 비해 관심의 정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방언의 중요성은 말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분야로 인식이 된다.

단원의 길잡이에서는 방언의 중요성을 약술하고 표준어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방언의 이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방언 바로 알기라는 소단원에서는 방언의 개념, 표준어와 방언, 방언의 특성, 지역방언과 사회 방언 등의 항목을 통해 방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았다. 방언의 실제와 잇기에서는 각 방언들의 대표적 특성을 다루었으며, 방언 조사 항목에서는 방언 조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면을 다루었고, 문학 작품 속의 방언에서는 각 지방의 방언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알아보고, 방언의 긍정적 기능과 계승에서는 계승·발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원의 마무리에서는 확인하기, 보충하기, 심화하기 등을 다루었는데, 확인하기는 바탕글에 대한 이해의 과제를 제시하고, 보충하기에서는 바탕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심화하기에서는 바탕글을 기본으로 응용하는 단계로 항목에 따라서 다소 힘든 과제도 제시해 보았다.

**【핵심어】** 방언 교육, 방언 교재, 방언 보존

〈Abstract〉

## How to Compose a Textbook for Dialect Province

Shin, Hee-s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ile six-period teaching materials for the tenth grade students on the basis of the Seventh Curriculum. Dialect is less concerned than standard language. But the importance of dialect is emphasized enough, considering the current confusion of language.

This paper is composed of four chapters. Chapter 1, the preface to the textbook, summarizes the importance of dialect and clarifies the necessity of dialect comprehension. Chapter 2, which deals with the concept of dialect, standard language and dialect, the characteristics of dialect, local and social dialects, etc., is focused on the general aspects of dialect. Chapter 3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Jeolla-do dialect. The last chapter deals with the confirmation, complement, and application of text.

This study will help students understand dialect and take pride in their mother tongue.

**【Key words】** seventh curriculum, dialect, standard language